

광산구, 주민자치 도약 발판 마련

21개 동 '주민총회' 마무리...주민 중심 마을문제 해결책 모색 비대면 감안 온라인 적극 활용...다양한 연령·계층 참여 눈길

광주 광산구가 처음 실시한 전 지역 주민총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대면을 감안해 온라인 창구를 적극 활용한 결과,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를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수완동을 끝으로 약 3개월에 걸친 전체 21개 동 '2021 주민총회'가 마무리됐다. 광산구 전 지역에서 주민총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에서만 총회를 열었으며, 광산구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대비해 올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9개 동에서도 시범적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인 광산구 전 지역에서 펼쳐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마다 'Zoom(화상회의)', '유튜브(YouTube)' 등을 적극 활용한 '온택트 총회'로 진행됐다. 올해 주민총회 참여 인원은 7만여 명이 추산 돼 지난해 2만8000여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전 지역 개최로 참여 폭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모바일과 온라인 등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점단2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3만5000여 명이 마을의제 선정에 참여해 무려 80.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 수완동은 'Zoom'을 통해서만 100여명이 총회에 함께 참여했

으며, 신가동은 '유튜브' 실시간 참여 인원이 810여 명을 돌파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관련 의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 돼 총회 열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광산구 주민의 남다른 열의와 참여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각 마을 현장과 더불어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인 '광산ON' 앱을 활용해 마을의제를 뽑는 사전투표를 실시한 점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다.

우산동은 청소년이 주민총회 사회를 맡아 마을의제 논의 과정을 주도해 눈길을 끌었다. 월곡1동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온라인으로 주민총회에 참가해 마을의 발전과 상생, 화합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농촌동에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Zoom'으로 총회에 참여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었다.

치열한 석 달간의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이름 찾기, 남녀노소 걷고 싶은 풍경정원 만들기, 거리 전시장 등 다양한 마을의제가 도출됐다. 이후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마을계획 수립을 거쳐 '202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산구는 "올해 주민총회가 '광산구 주민자치의 도약'의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 지역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경험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고 동시에 적극적인 온라인 수단 활용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8월 신가동 주민총회에서 주민들과 마을의제 발굴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 당시 신가동 주민총회는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만 810명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전체 동에서 주민총회를 경험하면서 한 단계 성숙한 주민자치기가 대된다"며 "주민의 열정적인 참여와 의제 실행력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생일꾸러미·나들이 동행...주민 의제 '눈길'

광산구 곳곳 마을복지계획 선정...내년 사업에 반영

광주 광산구가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직접 복지예산을 발굴하고 나섰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동마다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을 구성해 주민육구조사, 간담회, 주민선호도 조사 등 의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는 마을대동회, 마을복지계획 선포식 등을 이어가고 있다.

임곡동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은 지난 9월 30일 임곡복지문화관에서 마을대동회를 열고, 어르신 가정의 세탁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수풀갈갈미'를 마을복지의제로 결정했다. 고령에 차량이 없어 대형세탁물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마을의 현실을 고려한 의제다.

신장동 주민들도 최근 마을복지계획 선포식을 열고 홀몸 어르신 등 돌봄이웃에게 밀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반찬 나눔사업',

이불 수거에서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장빨래터 이불세탁 지원사업', 생일을 맞은 취약계층에게 미역국, 떡, 과일 등 생일 꾸러미를 전달하는 '생일키트 전달사업' 등 세 가지 복지예제를 선정했다.

운남동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은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과 기차나들이를 떠나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내년 추진사업으로 정했다. 최종 결정된 마을복지의제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년도 연중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준 높은 풀뿌리 자치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4일 지역사회사무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노력"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자영업자비대위 등 19개 협회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4일 지역사회사무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만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소상공인협의회 이경재 회장, 광산구소상공인회 김범주 회장,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허정훈 위원장 등 시·구 19개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광주시 소상공인협의회 이경재 회장은 "최초로 지역에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손실보상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복지제도 필요, 사업자 없는 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노래방협회 구일암 회장은 "30년간 자영업을

했는데, 올해가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직접적 피해가 큰 만큼 안전한 영업을 가능하도록 방역대책을 개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영업시간 연장, 착한 임대료 독려 및 소득공제 50% 지원, 대출 상환 기간·이자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집중 건의했다.

한국안전방역협회 임정섭 대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존 실내 중심의 '뿌리고 닦는' 방식에서, 넓은 지역에 공간방역·생활방역·자율방역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정부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문제를 잘 풀어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행복하(多)DAY 원데이클래스' 참여하세요"

광산구, 20일까지 모집...키링·인테리어소품 만들기 등

광주 광산구는 "오는 20일까지 '치유와 힐링의 시간, 행복하(多)DAY(행복하다데이)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소셜캠퍼스 온 광주' 6층 이벤트홀(광산구 상무대로 198)에서 각 분야 전문 강사와 함께 ▲키링 만들기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케이크 캔들 만들기 ▲커피&핸드드립 체험 ▲MBTI 검사 등 1일 행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산구 시민 또는 광산구 소재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2~3인 팀 단위로 모집한다. 광산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행사 당일 안전지수 측정, 기념사진 촬영(포토존 설치, 즉석 사진 촬영·인화) 등 행복체험관도 운영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행복정책관(062-960-6832)에서 받을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용우 테라코타전'

1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광산구는 "오는 1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가족을 주제로 '제17회 김용우 테라코타' 전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테라코타는 점토(terra)를 구운(cotta)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소촌아트팩토리의 기획 시리즈 38번째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의 실 곳이 되어주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테라코타 작품 28점, 석조각 6점 등을 전시하고 있다.

김용우 작가는 "가족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면서 "흙으로 빚어 가마에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붉은 재질의 테라코타 작품은 가족의 끈끈하고도 견고한 관계를 되짚어 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오는 10일 오후 5시에는 '위로해Dream' 갤러리 콘서트(크로스오버 듀오 메타노아)가 추가로 진행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90)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해영업본부 : 서해시 금곡동 기산단지22호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